

## 2014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11.27(목) 15:00~16:30

###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 보도의 가치를 높이고, 정확성·심층성 확보해야

- 19일 이슈따라잡기 로또 명당과 풍수지리학적 상관관계내용에서 특정 로또명당을 지칭했는데 보도채널에서의 풍수지리학적인 내용은 다소 걸맞지 않음(이용우 위원)
- 9일 '출발640' 항공사 승무원 키 제한 논란... 인권위 개선 권고 관련 기사에서 우리나라 7개 항공사 가운데 5곳이 승무원 채용에 키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키가 162cm가 안되면 지원조차 할 수 없고 대한항공의 경우 인권위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7년째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루프트한자 160cm, 유나이티드 152cm, 중동항공사, 델타 등은 키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등의 외국 항공사의 지원 자격을 상세히 소개해 주어 기사의 설득력이 있었음. 하지만 7년전 인권위의 권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인 감시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성낙용 위원)
- 뉴스 선정에 대한 편집권은 전적으로 존중하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왜 저 뉴스를 보아야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아이টে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기를 부탁함(양승찬 위원)
- 종편이후 북한 보도의 양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 보도의 양이 불필요하게 많을 뿐 아니라 뉴스 가치가 의심되는 뉴스들의 양산되고 있음. 북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함(최현철 위원)
- 뉴스Y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 전달 방식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음. 뉴스리뷰 '오늘의 하루' 코너에서 시민들이 출연하여 가족에게 주는 영상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뉴스를 다루는 채널에서 보기에는 매우 뜬금없는 콘텐츠 었음. 특정 사안, 사건과 사고, 뉴스 자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양승찬 위원)
- 3일 '뉴스현장14'故신해철 사인 논란 관련 내용에서 부검을 통해 명백한 사망의 원인을 가릴 수 있을지?, 천공이 왜 생겼는지?, 의료진이 초기 대처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부검 결과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어떤 처벌과 보상 문제 등 대부분의 질문이나 궁금증이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백성문 변호사의 답변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준 반면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는 설명이 다소 부족해 아쉬웠음(성낙용 위원)

- 23일 '뉴스Y' 한 주간 기업 기상도에서 한 주간 기업의 실적이나 상황 등을 맑음과 흐림으로 일기예보에 대비하여 표현한 것은 매우 신선했음. 그리고 빠른 전개로 액티브하게 진행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음. 하지만 대박기업으로 표현한 허니버터칩의 판매 승승장구, 하림의 김홍국회장 '나폴레옹 모자 26억에 구입' 등을 예로 들었는데 하림의 김홍국회장이 회사에 전시하려고 '나폴레옹 모자를 26억'에 사들였다는 내용이 시청자 입장에서 특이한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대박기업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음(성낙용 위원)
- 20일 울진 한울원전 15년만의 타결이라는 내용에서 신문에서는 1면톱으로 다룬데 반면 뉴스Y에서는 보도비중이 작지 않나 함(이용우 위원)
- 17일 신혼부부임대주택 퍼플리즘 공방 내용에서 여야의 의견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방안인데 양당이 입장대립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현실성이 있는것인지 아닌지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보도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용우 위원)
- 21일 07시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기대반 우려반 내용에서 도서정가제가 무엇이고. 기대가 정확히 무언지. 우려가 무언지. 좀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보도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웠음. 새로운 개념의 경우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시청자입장에서 이해에 도움이 됨(최진녕 위원)
- 27일 일부 금융기관의 개인 계좌에서 돈이 무단으로 인출된 것과 관련해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고객이 불안해 한다는 소식만으로는 시청자가 만족할 수 없어 보임. 이런 보도일 수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개개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피해 확대를 줄이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음(최진녕 위원)
- 18일 '뉴스현장14, 뉴스1번지' 대모산 방화범 잡고 보니 50대 조울증 주부 기사와 관련하여 앵커와의 대담에서 뉴스현장14에서는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이 뉴스1번지에서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출연하여 조울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방법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울증 관련 전문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경찰관계자가 출연하여 대담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떨어졌음. 시청자 입장에서 조울증 관련 의료계 전문가 출연하여 조울증에 대한 원인과 증상,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성낙용 위원)

####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 등 개선필요

- 17일 맹찬형의 시사터치에서 살짝 방송사고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시청자들이 신뢰성을 저버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김연화 부위원장)
- 9일 '출발640' 앵커 화면시 뒷 배경을 주조정실로 세팅하여 너무 어둡고 정적으로 보임. 출발640이 하루를 여는 아침시간임을 감안한다면 활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보도국이나 부조정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성낙용 위원)

- 9일 오후 4시 '뉴스1번지'에서 박대통령 출국과 관련하여 출국당시 장면과 일정을 첫 소식으로 전달했는데 그 후 이미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와 출영객 모습을 담은 영상을 우측 하단에 추가 화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듦(양승찬 위원)
- 13일 오전 10시 달 탐사와 관련한 보도에서 '단군 이래 최초 달 탐사'라는 제목 아래 기사에서 이 부분이 강조됨.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인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한 의도적인 과장이 내포되어 있어 불편함. 사실 전달에 충실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생각할 때 과장된 표현은 늘 주의하기를 부탁함(양승찬 위원)
- 26일 얼어붙은 소비심리 자막관련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103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보도했는데 소비자심리지수가 103이라면 다음달 소비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많을 것임. 이런 것을 얼어붙은 소비심리라고 보는 것은 맞는지 아닌지 함(이용우 위원)
- 5일 '출발 640' 시작 메인에서 '레버쿠젠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제니트와 경기에서 2,3호골 폭발'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하단 자막은 계속해서 '2호골 도전'이라고 보도됨(이용진 위원)
- 속보의 속성에 따라 띠 자막의 색상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고의 경우 기존의 빨간색이 적절하지만 기타 다른 뉴스 속보의 경우 갑자기 등장하는 빨간색 자막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음. 삼성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1승 1패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뉴스 진행 중 빨간색 띠 자막으로 등장했는데, 사건 사고가 아닌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사의 빨간색 띠 자막 처리는 뉴스 수용에서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음(양승찬 위원)
- 화면 아래 띠 자막이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나 본 화면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여전히 존재함. 하루 빨리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자막을 관리하는 인력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막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의성을 놓쳐 뉴스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잃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이용진 위원)

#### ▲ 사건사고 보도시 개선 및 유의사항

- 13일 '경기 양주서 수능 전날 수험생 아파트서 떨어져 숨져' 내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 평소 성적을 고민한 수험생이 양주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져다는 보도는 극도로 긴장상태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험생 자살 보도는 자제해 주었으면 함(김용주 위원)
- 5일 '뉴스리뷰 2부'에서故 신해철씨 사인 관련 보도에서 앵커 뒤 배경 내시경 촬영 장면을 중앙에 배치했는데 이와 같은 화면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담스

러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의료 치료 시술 관련 화면의 경우 노출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18일 '뉴스워치' 성희롱 관련 보도 등 재연화면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이 선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24일 '이슈따라잡기' '여중생과 40대 남 성관계... 성폭행인가 사랑인가?' 내용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관심들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미성년자들의 성문제를 10분 이상 편성하여 방송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태현 변호사가 차분히 잘 이끌어 주었다는 점이지만 자칫 흥밋거리로 전락할 것 같았음(이용진 위원)

#### ▲ 프로그램기획 및 편성의견

- 25일 지방시대 기존의 뉴스Y에서 방송한 내용에서 지역아이템만 편집해서 다루고 있는 듯 한데 명칭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음. 지방시대의 타이틀이라면 전국 지자체 등을 순회하는 연속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한다면 프로그램의명에 걸맞는 내용이 될 것(강대인 위원장)
- 공공스팟 편성중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등 비슷한 것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같이 묶어 나오면 시청자입장에서 비슷해보여서 혼란스러움. 각각 다른 시간대로 편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임(강대인 위원장)
- 뉴스Y는 주로 다중공공시설에서 주로 방송되고 있는데 방송프로그램을 사전에 방프로그램, 주의보 등 공익적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함(김연화 부위원장)
- 6일 '이슈분석' 무상시리즈 논란 재점화 내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문제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의 뉴스와 시사프로 등을 통해서 정치평론가들이 출연하여 방송하고 있는데,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기자들이 심층기획 취재를 하고 패널도 예산전문가,복지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여론을 선도하는 기획보도가 있으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연말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뉴스y가 기여를 하였으면 함(김용주 위원)
- 안전 문제(특히 안전 불감증)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함. 뉴스Y에서 특집, 또는 기획으로 한국 사회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뉴스를 했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 긍정적인 평가, 출연자 및 리포트 관련 의견

- 17일 '뉴스12' 최룡해 방러 출발관련 기사에서 평양공항의 사진제공이 깔끔하지

- 는 않았지만 신속히 보도된점은 돋보였음(강대인 위원장)
- 24, 25일 오전9시 유사뉴스를 한데 묶어서 편집방송하는 것은 시청자입장에서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음(강대인 위원장)
  - 5시 아침뉴스 외신기자가 출연해서 각 특파원의 보도 등 주요 외신내용을 전달 하는 것이 아침시간에 신선하게 느껴졌음(강대인 위원장)
  - 19일 구내식당 지자체구내식당이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주변식당이 장사가 안돼 어렵다는 내용에서 경제문제는 얼핏보면 영세식당업자와 구내식당과의 관계만 다루지 않고 소비자의 입장도 함께 보도해 바람직했음(이용우 위원)
  - 26일 11시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그 경과와 결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Y가 통합진보당의 창당에서 부터 현재 상황에 이르기 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기획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함. 특히 이번 통진당 해산 재판과 관련한 뉴스Y의 보도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평이하게 설명해 준 것으로 판단함(최진녕 위원)
  - 3일 '뉴스1번지'에서 '故신해철 부검...밝혀야 할 의혹은' 과 관련하여 시청자들은 의료사고 여부에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인 김선옥 변호사가 출연해 故 신해철 씨 유족이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사고 및 소송등 여 여러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22일 '미니다큐 오늘' '우리 곁의 명장을 찾아서' 프로그램은 제목만으로는 너무 빠른 내용 같았지만 도입부에 명장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현장을 보여주고 각 분야별 명장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맘과 열정을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어 너무 잘 보았음(이용진 위원)
  - 실시간 뉴스를 보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루 전 뉴스들이 띠자막을 통해 방송 되기도 하는 것에 비해 '지방시대'는 지역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의 소식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음. 25일 보도 중에도 '해인사에 낙서한 여성 검거'나 '제주서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행 허용 논란' 등 지역 현안들을 전달해주고 있어 만족하며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임(이용진 위원)
  - 출연진의 중복문제가 있음. 종편에 나오는분들과 같은 보도채널에 출연하는 분이 뉴스Y에도 출연하고 특정 출연자는 마치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인 듯한 지나친 모습은 의문이 듦(최진녕 위원)
  - 23일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배임혐의 기소 관련 인터뷰에서 출연자가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나오신 분인데 참여연대 출신으로 한쪽 입장이 있을 수 있음. 양쪽입장을 대변하는 출연자가 함께 나와 균형을 이뤘으면 함(이용우 위원)
  - 27일 '맹찬형의 시사터치'에서 원탁에서 진행하는데 패널3명이 같이 앉고 진행자가 앞에서 혼자 앉아 있는 자리 구성이 불편해 보였음. 라운드 테이블의 장점은 참여자가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대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것인데 마치

학교 수업 처럼 진행자가 대담 패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질문하는 것 처럼 보였음(최진녕 위원)

- 출연자 구성시 패널중 황모 소장같은 경우에는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분인데 뉴스Y패널로 적절한지 걱정이 됨. 한국사법연구원의 류모 교수님이 실제 법조인인지 어떤 분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임. 출연자 선정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음(최진녕 위원)
- 기상캐스터가 바뀌어서 날씨 정보를 볼 때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익숙했던 날씨 뉴스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기상캐스터를 바꿀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함(양승찬 위원)

#### ▲ 기타 의견

- 뉴스Y가 시청자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생각해봐야 함.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이나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형식적인 듯 함. 실제적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선되어 시청자들이 더욱 만족하는방송 공인적인 방송이 되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글로벌 Y와 글로벌 인사이트, 뉴스 브런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 감(최현철 위원)
- 홈페이지의 주요검색의 편의성은 좋지만 클릭하다보면 전혀 관련없는 기사가 나올 경우가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홈페이지 접속시 재생스트림이 실행되어 웹브라우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보다 편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김연화 부위원장)
-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많이 보는 소비자를 위해 홈페이지 개선과 모바일에서도 뉴스를 접속 할 수 있도록 뉴스 접속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끝)